

# 다시 여는 국립공원·동물원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중단된 국립공원 야영장과 동물원 실내시설 등의 운영이 재개된다.

환경부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 방역)로 전환함에 따라 국립공원 야영장, 동물원 실내 전시·관람 시설, 국립생태원 등 실내 공공시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동물원 등 시설별 특성과 위험도 등을 고려해 방역 유형별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6일부터 현장에서 적용한다.

이를 위해 시설별 현장 특성을 고려해 유형별 생활방역 세부지침과 기관별 시설 관리·개방 계획을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따라 공공시설 운영 단계적 재개 국립공원 단체 탐방 자제·동물원 입장권 온라인 예매하기 등 당부

마련해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설 관리·개방 계획에 따르면 국립공원 야영장은 1동씩 건너 개방할 전망이다.

동물원은 실외 관람 시설을 전부 개방하고 실내 관람 시설의 경우에는 동물원별로 개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국립생태원은 실외 관람 시설은 현재와 같이 지속해서 개방하고, 실내 시설 중 예코리움을 6일부

터 새롭게 개방하기로 했다.

다만 대피소와 같이 협소한 실내 시설이나 밀폐형 다중 이용 시설은 추후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된 후 개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이용객들에게 단체 탐방을 자제하고, 우측으로 ‘한줄 통행’해달라고 안내했다.

동물원을 방문할 때에는 온라인에서 입장권 사

전 예매하기, 동물원과 직접 접촉 최대한 자제하기 등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 인기 동물 우리 등 주요 밀집장소에서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인수 공통 감염병 보유가능 동물종에 대한 접촉이 차단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위한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대표적인 여가시설인 국립공원과 동물원 등에서 안심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방역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서구 고령친화도시 구현 ‘알아야 할 복지제도’ 안내서 출간



광주시 서구가 어르신들의 복지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백세정촌, 행복복한 노년을 위한 꼭! 알아야 할 복지제도’ 안내서를 출간했다.

안내서에는 어르신들의 소득지원, 건강관리 사업, 돌봄사업, 요양간면 사업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안내서는 어르신들이 보기 쉽도록 글자 포인트를 키웠다. 또 글 읽어주는 스마트폰 어플(보이스아이)을 도입해 어르신과 시각장애인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출간된 안내서는 18개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노인종합복지관 및 유관기관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 배부를 통해 서구 어르신들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알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천서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초동 방제훈련

서구, 유류차량 전복사고 대비 오일펜스 설치 등 시연

광주시 서구는 대규모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한 초동 방제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방제훈련은 서구 광천1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전복, 유류 50l가 광주천으로 유출돼 목격자가 신고한다는 상황을 가정한 현장훈련으로 진행됐다.

훈련은 상황 발생에 따른 오일펜스 설치, 폐유 흡

작 제거작업 등을 포함한 초동 방제조치 시연으로 진행됐다.

서구는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환경 오염사고 상황을 설정해 정기적으로 방제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결과를 지속적으로 훈련 지침서에 반영해 현장 대응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서구청 직원들이 최근 광천1교 아래에서 수질오염사고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서구청 제공>

## 동구, 전국 최초 전통시장에 음식물처리종량기 설치

광주시 동구가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에 음식물처리종량기(RFID)를 설치했다.

동구는 ‘2020년 쓰레기 없는 마을, 깨끗한 행복동구’를 만들기 위해 ‘남광주해뜨는시장’에 음식물처리종량기를 설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음식물처리종량기는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대상을 식별하는 장치로 배출카드를 인식해 사용자정보를 확인하고 음식물 쓰레기무게를 계산, 배출한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동구는 기존 음식물처리 스티커를 구매해서 규격통이 다 채워질 때까지 보관하다 배출하던 방식을 배출자가 언제든 편리한 시간에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투입구 자동폐시스템으로 변경했다.

이번 종량기 설치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점포의 음식물처리 수수료를 30%이상 감량하고 위생·미관상 문제까지 해결하는 등 시장의 환경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동구는 설명했다.

동구는 올해 동구내 모든 전통시장과 공동주택의 신청을 받아 종량기 설치를 지원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점차 감량해나갈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전통시장 최초로 시도하는 종량기 설치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은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친환경시장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상인회 등 여러 기관·단체들과의 지속적인 민관 협력으로 깨끗한 동구 구현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좋은 부모·좋은 어른 되기 ‘인권교육’ 프로그램 진행

광주지역 부모들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열린다.

‘인권교육 활짝’은 지역민들을 초대해 좋은부모·좋은 어른이 되기 위한 ‘부모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인권지기 활짝과 광주시 교육청 학부모 지원센터의 지원으로 강의와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오는 6월 매주 한차례씩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광주인권지기 활짝 사무실에서 총 4번 실시된다.

첫번째 교육은 6월 3일 편혜문 놀이연구사가 ‘어린이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주제로 시작된다.

김향심 인소울 성장연구소장은 6월 10일과 17일 각각 ‘아이야, 넌 인생의 주인공이야’, ‘사랑의 존재로 자라게 하는 일상의 성교육’이라는 주제로 두번째와 세번째 교육을 맡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전남 65세 이상 고령층 연금수급 비율 46.4% 전국 두번째로 높아

지난해 전남지역 65세 이상 인구대비 연금수급자 비율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대비 연금수급자 비율은 광주 41.8%·전남 46.4%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은 42.5%이며, 전남 수급비율은 울산(47.7%)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번째로 높았다. 광주는 열두번째를 차지했으며, 강원(39.1%)·대전(40.2%)·서울(40.9%)·인천(41.0%)·경기(41.1%) 등이 하위권에 들었다.

전남지역에서는 65세 이상 전체 인구 42만 2500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9만 6200명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19만 5500명 가운데 8만 1600명이 수급자였다. 전국으로 따지면 62세 이상 인구 800만명 가운데 341만여 명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이는 총 37만 6000명으로 집계됐다.

연금 종류별로 따지면 광주지역 수급자는 ▲노령연금 9만7800명 ▲장애연금 2100명 ▲유족연금 1만9700명 등 총 11만9700명이며 전남은 ▲노령연금 20만1400명 ▲장애연금 3100명 ▲유족연금 5만1500명 등 총 25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도 시행 33년 만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이달 500만명을 돌파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